

본원 · 보라매병원 직원식당

누가 더 최악인가

또다시 시작된 보라매병원 직원식당의 악몽

최근 조합원들로 부터 직원식당 밥이 형편없다며 노동조합으로 항의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투쟁을 통해 직원식당의 식사 질을 일부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또다시 악몽이 반복되고 있다.

서창석 병원장 취임과 동시에 바뀌기 시작

조합원들은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이 수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창석 병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보라매병원의 대부분의 부대사업이 LG 계열 업체로 변경되더니 이제는 직원식당까지 같은 계열의 업체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서창석 병원장이 있던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식당도 같은 LG 계열이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본원 직원식당은 더욱 더 심각

본원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병원이 식대 1,000원을 업체에 더 보존해주고 있지만 보라매병원 직원식당 못지않은 최악의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모든 음식들이 냉동식품으로 대체되면서 식사 질 저하가 심각하다. 더군다나 빠듯한 점심시간 최소 15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온 식사라 더욱더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직원식당 직영전환 실시하라

병원은 지금의 식대로는 식사 질 개선이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식당은 민간 업체라 식사 질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고도 한다. 직원들의 복지에 힘쓰겠다고 하더니 밥 한 끼조차 책임도 못지는 병원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환자와 직원 상대로 돈벌이 할 생각 말고 직원식당 직영전환 당장 실시하라.



보라매병원 야식으로 나온 셀러드 채소는 먹다 남은 찌꺼기 마냥 너무나 부실하고 쫄면은 텅텅 불었다며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1월 31일, 본원 직원식당 점심메뉴

2017년 임단투 노사합의 이행보고

복지포인트 1월 1일 복직자도 지급 확정

그 동안 병원은 휴직자가 1월 1일에 복직하여도 전년도 12월 31일에 재직하지 않으면 그 해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1년을 다 채워도 복지 포인트를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현장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노동조합은 병원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1일 복직자에게도 당해 연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응급실 간호운영기능직 합의인력 3월중 정원 확보하기로

권역응급센터 지정으로 인해 응급실 면적이 2배 이상 확장되고 업무가 늘었음에도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응급실 직원들의 병가가 속출하는데도 병원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끈질긴 인력충원 요구와 투쟁으로 간호운영기능직 1명, 환자이송 1명 인력을 충원하는 합의를 했다. 그리고 3월중 간호운영기능직 1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신입 간호사 및 간호운영기능직 발령 전 교육기간 체불임금 5년간 소급지급

서울대병원을 이슈의 중심에 서게 했던 간호부 신입직원 발령 전 교육기간 임금 체불에 대한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다. 노사합의 내용은 2012. 6. 1. ~ 2017. 6. 1 까지 해당 간호직 및 간호운영기능직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합의였다.



하지만 어제(1. 31) 병원이 2012. 9. 1. 이후 입사자에게만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 되었다. 노동조합은 즉각 제대로 된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했고 병원은 다시 2012. 6. 1. 이후 입사자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3년의 체불임금 지급시효를 넘어 5년의 체불임금에 대한 소급을 합의한 매우 의미 있는 합의였다. 이것은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 했던 직원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병원은 과거 몇 년 동안 직원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착취한 과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지금 당장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3월 조합원 하루교육 안내

미리 미리 신청 하세요~~~

날짜 : 2018년 3월 14일, 28일, 29일

장소 : 추후 공지

프로그램 : 추후 공지